



카카오-복지부, '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업' 맞손
카카오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보건복지부와 시니어 디지털 포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 CA협체 권대열 ESG위원장(오른쪽)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LG U+, 'U+키즈존' 아동 구호키트 제작 봉사활동
LG유플러스는 재난 구호 현장에 설치될 'U+키즈존' 전용 아동 구호키트를 제작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구호키트 제작 후 김창훈 LG유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아랫줄 왼쪽 세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DB손해보험 "환경보호·교통안전 함께 이뤄요"
DB손해보험은 '2024 함께 약속 페스티벌'과 '프로미 교통안전체험'을 지난 1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동시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약속 페스티벌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길'이라는 주제로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했다. 프로미 교통안전체험은 VR 체험 등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DB손해보험



세종대-럿거스대, 상호협력·교환학생 파견 협정
세종대학교는 지난달 25일 세종대 집현관 10층 소회의실에서 미국 럿거스대학교 캠퍼스(Rutgers University-Camden)와 상호 협력 및 교환학생 파견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대 임종화(왼쪽에서 네번째) 총장, 럿거스대학교 캠퍼스 지미 정(Jimmy Jung) 부총장(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부음

▲ 조길순씨 별세, 박종철(KBO 심판위원)씨 모친상 = 6일,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특실, 발인 8일 오전 9시 30분. 063-445-4444
▲ 문태옥(전 농협중앙회 제주부지회장)씨 별세, 김복혜씨 남편상, 문성연·성미(울산대 간호대 교수)·금희(부천문화재단 부장)·지역(서울행천초 교사)·경숙(LG디스플레이 책임)·석준(두산에너지빌리티 수석)씨 부친상, 김종윤(중앙일보 상무)·변승현(재중)·이응구(작가)·강동현(모코엠시스 이사)·박경빈(특허법인 충정변호사)·유수암(Sylink Alliance Ltd. 대표)씨 장인상, 김은주(서울금북초 교사)씨 시부상 = 5일 오후 4시 45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8일. 02-2258-5979

KCC글라스, 인니공장 완공... 'K-유리' 세계화 첫발

**정몽익 회장, 화입식 행사 참석
일 최대 1200t 판유리 생산 가능**

KCC글라스가 인도네시아에 'K-유리' 세계화를 위한 불을 지폈다. KCC글라스는 지난 3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법인의 유리 생산 공장인 바탕공장을 완공하고 용융로(熔融爐)에 불씨를 넣는 화입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의 바탕산업단지에 46만㎡(약 14만평) 규모로 세워진 KCC글라스 바탕공장은 연간 44만(톤) 규모의 판유리 생산설비를 갖춘 초대형 유리 생산 공장이다. 하루 생산량만으로 123층의 롯데월드타워 외벽 전체를 두를 수 있는 최대 1200t의 판유리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 3일 KCC글라스 인도네시아법인 바탕공장에서 진행된 화입식에서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오른쪽)이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용융로에 불씨를 넣고 있다. /KCC글라스

KCC글라스는 지난 2021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3000억원을 투입해 해당 공장을 준비해 왔다. 국내 유리 생산 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은 화입

식 기념사를 통해 "KCC글라스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인도네시아법인의 바탕공장은 인도네시아를 세계 유리 산업의 주요한 플레이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KCC글라스는 화입식을 시작으로 용융로 가열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판유리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법인의바탕공장 완공으로 KCC글라스는 기존의 국내 공장인 여주공장과 합쳐 연간 총 174만에 이르는 판유리 생산능력을 갖춘 글로벌 유리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 KCC글라스는 바탕공장에서 생산하는 판유리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유리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향후 7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해당 공장을 아세안, 오세아니아, 중동 등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종합 유리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현대차, '일렉시티 FCEV' 누적 판매 1000대 돌파

(수소전기버스)

**9월 마감 기준 1032대 기록
"수소버스 보급 적극 노력할 것"**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가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대를 넘어섰다. 현대차는 친환경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의 누적 판매량이 2024년 9월 마감 기준으로 총 1032대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는 1998년부터 수소 관련 R&D를 시작해 ▲2019년 세계 최초 시내용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2023년 고속형 수소전기버스 유니버스 FCEV를 출시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는 2019년 출시된 도심형 수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소버스다. 최고출력 180kW 연료전지 시스템과 875l 수소 탱크 용량, 78.4kWh의 고효율 배터리를 탑재해 교통 지체 구간이 많은 노선이나 장거리 운행 노선, 언덕 구간 등의 전기 소모율이 높은 운행 노선에 적합하다. ZF 신규 센트럴 모터를 적용해

운영 효율이 뛰어나고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갖춘 연료전지 시스템과 동급 최고 용량의 수소 탱크를 적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550km를 주행할 수 있다. 수소버스 1대를 1년간 운행할 경우 이산화탄소 72톤을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약 2700여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이다. 현대차는 지난 4일 누적 판매 1000대를 기념해 경기도 화성 남양기술연구소와 롤링힐스 호텔에서 지역별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및 운수사 대표 등 40인을 초청해 감사 행사를 진행했다. 또 현대차는 올해 2월 국내 최대 육상 운송회사인 KD운송그룹과 오는 2027년까지 총 1000대의 수도권 공항/광역/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가속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현대차에서도 수소버스 1대당 4000만원 상당의 무상 수리 부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소버스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신규 팝업

아산나눔재단, 마루콜렉트 '스페이스 포 어스' 전시

아산나눔재단이 오는 11월 4일까지 '마루콜렉트'에서 스타트업 세 곳과 함께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마루콜렉트 팝업 '스페이스 포 어스: 우리들의 작은 우주'는 크고 작은 행성들이 모여 거대한 은하를 이루듯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경험하도록 기획됐다. 아산나눔재단에 따르면 ▲식



마루콜렉트 팝업 '스페이스 포 어스: 우리들의 작은 우주' 전시 내부 전경. /아산나눔재단

물을 키우는 즐거움을 전하는 가드닝 브랜드 '나무나무스토어'

▲시민들이 모여 환경 문제를 즐겁게 해결해 나가는 사단법인 '지구꾸는사람들'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 커머스 플랫폼 '트립소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 3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루콜렉트 팝업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무료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구매와 체험을 제외하고 무인으로 운영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국맥도날드 '노인의 날' 기념식 복지부 장관 표창

한국맥도날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개최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두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포용'을 핵심가치 중 하나로 삼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들에게도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크루를 적극 채용하고 있다. 맥도날드에 재직 중인 55세 이상의 시니어 크루는 현재 755명에 이른다. 특히 최고령 직원은 만 82세(1942년생)로, 시니어 크루의 평균 연령은 만 61세이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1988년 한국 진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학력·나이·성별·장애 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지향하며, 시니어와 주부, 장애인을 비롯해 다양한 취약 계층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G "차니베어' 신규 캐릭터 만나보세요"

KT&G 상상마당 흥대가 일러스트 캐릭터 브랜드인 'CHANIBEAR(차니베어)' 팝업 스토어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18년 론칭한 차니베어는 귀

여운 일러스트 캐릭터 제품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징 브랜드다. 'MAKE A WISH!, CHANIBEAR(소원을 말해봐!), 차니베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차니베어의 신규 캐릭터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구매한 소품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 키링 만들기, 나만의 소원 빌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체험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